

고려·조선시대 불복장 유물 한자리에

국립중앙박물관, 8월 2일까지 '발원...' 특별전

공덕을 쌓으며 부처님에게 소원을 비는 '발원(發願)'에는 신본고하의 차별이 없었다. 크고 작은 불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찬란한 불교미술을 잉태했고 그 공덕으로 현재의 아름다운 불교미술 작품이 남겨졌다. 불교미술을 후원한 옛사람들의 삶과 염원을 살펴보는 특별전 '발원, 간절한 바람을 담다'가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특별전시실에서 8월 2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는 불교미술 작품과 함께 전해지는 '발원문'에 주목한다. 불복장물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진행하는 소장 불교조각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연구 사업의 최신 성과로 '금동아미타삼존불', '목조관음보살좌상' 등 불상 속에 오랫동안 잠겨있던 복장물과 명문 기록들이 보존처리를 거쳐 일반에 처음 공개된다.

총 126건 431점의 작품이 공개되는 전시에는 34건 134점이 국보와 보물이고, 시도 유형문화재가 3건 3점이다. 사리구와 불상의 명문(銘文), 경전의 간기(刊記), 사경에 기록된 사성기(寫成記), 불화의 회기를 비롯해 범종·쇠북·향안의 명문 등 다양한 형식의 발원문을 통해 불교미술 제작에 얽힌 사람들의 삶의 희로애락과 신심(信心)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법당 안에 불상과 불화를 봉안하고, 법회를 열어 부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는 불사에는 주로 왕실이나 권력 있는 신로 같

은 당대의 권력자, 재산가의 후원이 있었다. 이번에 전시된 '황복사지 삼층석탑 사리구' 중 하나인 '금제 불입상'(국보 80호)의 복장품에는 신라 신목태후가 어린 왕에 대한 우려와 기원을 담아 시주한 발원문이 남아있다.

반면 고려시대인 1333년 조성된 금동아미타삼존불상은 몸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발원문을 품고 있었다. 눈에 띄는 것은 '길택' '만덕' '금이' 등 성씨가

복장물 등 431점 일반 최초 공개

당시 민초들의 성보 제작 동기 엿보여

없는 평민들의 시주자 이름이다. 복장물(불상을 조성하면서 배 안에 넣는 여러 가지 유물) 중 다라니 판본에 예문판 대제학을 지낸 김진의 이름도 등장한다. 고위 관료부터 평민까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 아미타삼존불을 조성한 사실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1346년의 문수사아미타불좌상 복장물에도 비슷한 사례가 보인다. 13세기에 들어 경제가 활성화되며 평민계층에서도 많은 불사에 동참함을 짐작해 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이외에도 사찰이 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재의 복장물도 일반에 공개된다. 사찰에서 소장하고 있



'길택' '만덕' '금이' 등 평민들의 시주자 이름이 대거 등장한 고려 아미타삼존불



신라 신목태후가 시주한 황복사지 사리구

는 성보가 7건 77점에 달한다. 수덕사가 소장하고 있는 '문수사 아미타불 복장물'(보물 1572호)의 복식과 아름다운 직물은 고려 시대 수준 높은 직물 문화를 보여주며, 파계사 원통전의 관음보살상 복장물인 '영조대왕 도포와 발원문'(중요민속문화재

220호)는 임금이 입던 도포가 간절한 염원을 간직한 채 복장물로 납입된 신심어린 이야기를 전해준다.

특히 이번 전시는 왕공귀족, 관료, 향리(鄕吏), 향도(香徒), 백성, 여성 등 불사를 후원했던 각계각층으로 나눠 전시를 구성했다. 시대에 따라 어떤 계층이 어떤 분야를 후원했는지 살펴볼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국가가 후원한 사리구에서 백성의 소박한 바람이 담긴 작은 불화에 이르기까지 당시 불교미술에는 신앙과 염원이 깃들여 있다"며 "특별전을 통해 우리 삶을 지탱해 온 종교적 정서에 눈을 돌리는 여유를 가져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o@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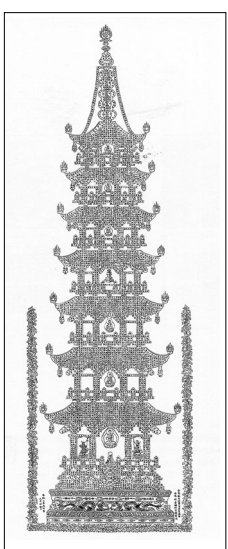
아버지에게 바치는 금강경 7층 보탑도

박경빈 사경전 미술세계 갤러리

"오랫이 못 끝에 한 마음 모아 오직 부처님 깨달음을 본받고자 수행일념으로 묵선(墨禪)의 세계에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경을 하면서 쌓아온 공덕이 작게나마 있다면 지금까지 맺은 모든 인연들에게 회향합니다."

매년 박경빈의 사경전이 6월 3일~9일 갤러리 미술세계에서 열린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불' '문수보살' '문수보살' '반아비라다심경' 등을 백지묵서로 작업해 대중들을 찾아간다.

특히, '금강반아비라다심경 보탑도'는 7층 보탑 내부에 금강경 내용을 49×133cm 백지에 묵서로 담았다. 방자를 열릴 때 덮어주어 함께 묻거나 태웠다고도 하는 보탑도는 집착의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작가는 연로한 아버지를 떠올리며 작업에 임했다고 한다. "내 기억 속에 그동안 살아오신 아버지의 여정을 떠올리며 정성을 담아 한 탑 탑 보석처럼 글자를 쌓아 올렸다. 가시는 날 이 비불



금강경 보탑도

뒀고서 부디 편안한 길 되시라고 매일 매일 두 손을 모으며 작품을 완성해 나갔다"

이렇게 금강경 작업을 완성한 작가는 묘법연화경을 세로 2m에 이르는 보탑으로 완성해 내는 힘을 얻게 되었다고, 이에 대해 "내게 맡겨진 운명이라 생각하고 연초에 3천배 기도를 하고 정월 대보름에는 삼사 성지 순례를 돌며 7만여 법화경 글자를 보탑도 안에 완성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박경빈 작가는 성균관대 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대한민국 미술대전 서예 부문 우수상, 대한민국 서예 휘호대회 우수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정혜숙 기자

"지눌 사상 전승, 강학체제로 살려야"

손성필 고전번역원 연구원, 보조사상연구원 세미나서 주장

"고려중기 이래 주요 사상 전통인 지눌의 사상은 16세기 초 지업에 의해 강학체제로 수용됐고, 강학체제에 따라 법통과 별개로 수용돼 현재에 이르렀다."

손성필 한국고전번역원 연구원은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이 5월 23일 서울 법륜사에서 개최한 제112차 월례학술대회에서 '조선중기 지눌사상의 전승양상' 발표를 통해 지눌 스님의 사상이 법통이 아닌 강학체제를 통해 전승돼 왔다고 주장했다.

손 연구원은 이날 "지눌 스님의 사상은 조선 불교 역사에서 비중있게 여겨지지 않은 듯하지만 이는 연구부진과 평가 절하에 따른 것"이라며 "조선불교사 인식에 따르면 사상사적 입지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제법통 중심의 이해에서는 지눌 사상은 전승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손 연구원은 이어 "지눌 사상의 전승은 인적 관계가 아닌 인물간의 영향관계나

서적을 통해 후대에 간행, 강독되는 방식으로 전승됐다"며 "이를 연구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연구원은 "조선 후기 강학체제에는 지눌 스님의 '계초심학인문', 제자 핵심 저술인 '선문염소집' 등이 포함됐을 뿐 아니라 그 과정이 지눌 스님의 사상적 영향 때문"이라며 "이는 계보에 국한되지 않은 사상임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손 연구원은 지눌 스님의 전승을 강학체제를 통해 살펴봤다. 손 연구원은 "강학체제를 지향한 스님은 지업, 영관, 휴정과 선수 문도에 의해 이력과정으로 확립됐다"고 밝혔다.

손 연구원은 끝으로 "법통 중심의 사상 전승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지눌 스님 뿐만 아닌 종조 법맥 분석 등에도 적용되는 부분"이라며 "강학체제의 전승과정을 향후 법통 분석에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깨달음에 이르는 고행 과정 영상으로

애니메이션 영화 '붓다-위대한 여정'

"당신께서는 신입니까? 인간입니까?"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인간도 아니다. 오 브라만아, 나는 붓다이다. 그러니 브라만아, 나는 세상에 태어나고, 세상에서 자랐지만, 세상을 극복한 뒤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는다. 나를 붓다로 알라."

브라만 도나와 부처님이 주고받은 대화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에 의해 변화된 존재이다. 인간으로 자랐지만 깨달음에 의해 변화된 자이며 잠에서 깬 자인 붓다인 것이다. 한 나라의 왕자에서 삶의 깨달음을 얻은 붓다가 되기까지 번민과 고행의 과정을 그려낸 영화 '붓다-위대한 여정'이 개봉했다.

일본에서 '만화의 신'으로 불리는 테즈카 오사무의 걸작 '붓다'를 영화화한 애니메이션 두번째 이야기로 영화는 젊은 날의 붓다는 무엇을 꿈꾸고, 갈등하고 그리고 무엇을 찾으려 했을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2,500년 전 인도, 코살라국과 마가다국은 갠지스강의 지배권을 놓고 전쟁 중이었고, 히말라야 기슭의 조그만 왕국인 사카국 역시 코살라국의 계속된 공격을 받는다. 전쟁에 말려든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사카국을 구원할 후계자의 탄생을 갈망했고,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기라도 하듯 새로운 왕위를 이을 왕자가 태어난다. 지상의 모든 생명체로부터 축복 받으

며 태어나, '세상의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은 그의 이름은 싯다르타.

사람들의 고통과 죽음에 대해 번민하는 청년으로 성장한 싯다르타는 무엇 하나 부족할 것 없는 자신의 신분으로 자신을 번민하게 하는 것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멀고 먼 여행을 떠난다.

영화는 싯다르타가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인간이 가진 근원적 고통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고행을 떠나는 과정을 담았다. 싯다르타가 겪는 내면의 갈등과 정신적인 성장을 통해 감동적인 메시지를 선사하는 '붓다-위대한 여정'은 이미 개봉 전,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 세계 최초로 프리미어 상영을 가지며 언론과 관객들의 높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이번 영화에는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개봉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내 주목된다.

"영화를 만들어준 제작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자비를 바탕으로 한 붓다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지혜'와 '깨달음'이다. 그런 의미에서 '붓다-위대한 여정'은 단순히 붓다의 생애를 그린 것에 멈추지 않고 그의 가르침과 철학에 대해 전달하고 있다. 그러한 메시지를 통해 세계 평화에 일조할 것"이라며 영화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도 전달했다.

정혜숙 기자 bwjns@hyunbul.com



'붓다, 위대한 여정'은 싯다르타의 깨달음의 여정을 담고 있다.

"국악소녀 아닌 뮤지션으로 거듭났어요"

불자 국악인 송소희 첫 앨범 'New song' 발매

국악소녀 송소희가 첫 앨범 'New song'을 내놓았다. 국악소녀 송소희가 아닌 뮤지션 송소희의 면모를 엿볼 수 있는 이번 앨범에서는 국악적인 발성에서 나오는 시원시원하고 호소력 짙은 목소리와 감성적이고 드라마틱한 편곡이 만나,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국악과 함께 선보인다.

특히, "지금처럼만"은 송소희가 작사에 참여한 곡으로 아버지의 쓸쓸한 마음을 아쟁으로 표현 인트로부터, 몽글한 느낌을 자아낸다. 전체적으로는 락발라드의 사운드를 만들고, 기타와 아쟁, 스트링이



어우러져 새로운 사운드를 만들어냈다. 이번 앨범에는 베이스리스트이자 작곡가인 이형성이 전 장르의 음악을 국악과 함께 선보인다. 특히, "지금처럼만"은 송소희가 작사에 참여한 곡으로 아버지의 쓸쓸한 마음을 아쟁으로 표현 인트로부터, 몽글한 느낌을 자아낸다. 전체적으로는 락발라드의 사운드를 만들고, 기타와 아쟁, 스트링이

정혜숙 기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동상 / 특허청장상 수상 CE 인증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전통운반차의 선구자! **근우테크주**

나르엔 KW-B4D300DP(덤프&리프트 겸용) 4륜구동의 강력한 파워

나르엔 KW-BRD300 보조피이프 옵션 360° 제자리 회전 평지 200kg 운반가능

나르엔 KW-BS200 돌소

“전통운반차 1회 충전으로 3~4일 운전 가능”

“사람에 최적화된 다섯가지 특징”

1. 안전한 공양 및 제수 운반!
2. 간편하고 안전한 사용법!
3. 저렴한 유지비!
4. 안전한 연동 설치 작업대!
5. 소음 걱정 끝~!

문의전화 : 010-7518-7854, (053)801-7897, 7895
대구광역시 북구 경안 공단로 82-6(경안동 887-160번지) www.kw-tec.co.kr

생명 에너지를 글썽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한인동 요기마을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한 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이목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구운 가루 자색죽염 125g 40,000원
가루 자색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색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색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색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색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색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대원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맹을 한 몸에 받은 대원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신간! 실증설 5개국어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불법의 참뜻을 보이기 위해 출연한 펜을 들어 일시에 써내려간 실증설! 실증한 이가 아니고는 설파할 수 없는 도리로 가득한 이 책이 드디어 영어, 불어, 스페인어, 중국어를 더하여 5개국어로 편찬되었다.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과학도 밝히지 못한 태초와 우주탄생의 비밀, 더불어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를 밝혀놓은 환단고기. 근본성품으로부터 비롯하여 전우주, 지구촌으로 이어온 광대무변의 역사와 진리를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일체중지를 통달한 명안 종사의 안목으로 밀밀하게 바로보였다.

www.zenparadise.com 참조 ☎ 031-534-3373